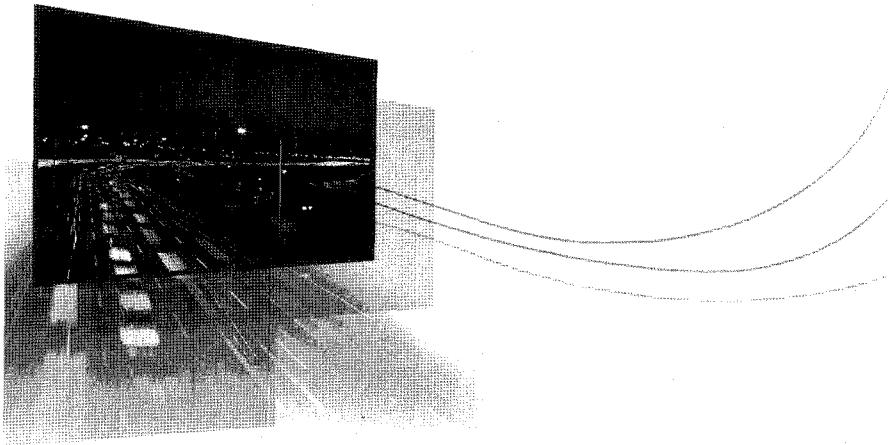


간편한 산업통계 검색



산업통계를 누구나 쉽게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산업통계분석시스템(ISTANS)을 지식경제부와 산업연구원은 전면 개편하였다.

ISTANS(Industrial Statistics Analysis System)는 미시적 산업통계의 통합검색, 분석이 가능한 웹기반 시스템이다.

주요 산업통계 지표에 대한 국가간·산업간 비교, 개별 산업의 전반적인 현황을 ISTANS 사이트에서 2~3번의 클릭만으로 파악이 가능하다. 국가별 제조업 고용비중, 자동차부품 산업의 산업구조·투자·R&D·산업성과 등 전반적인 상황, FTA 체결국으로의 수출액 등이다.

철강 산업의 산업구조, 투자, 연구개발, 무역, 산업 성과 등 전반적인 현황을 파악하고 싶다면? 산업별 통계에서 철강 산업을 클릭(2번만 클릭)하면 되는 것이다.

기존 통계사이트에는 없는 무역특화지수 같은 다양한 통계를 간편하게 검색 가능하고, 여러 사이트에 산재해 있는 경제지표를 종합 수록하였다.

국민소득, 생산, 무역, 고용, 생산성, R&D, 해외자원자주개발률 등 제조업과 서비스업 통계를 확장·세분화하는 한편, 사용자 편의를 고려하여 디자인과 인터페이스 단순화하고 메뉴를 재배치하였다.

【 ISTANS의 '주제별 통계' 화면 】



제조업 25개 산업 → 30개 산업, 서비스업 8개 산업 → 20개 산업이다. 앞으로도 신성장동력산업, 융합산업 등 새로운 산업에 대한 통계 콘텐츠를 추가 제공하고 주요 신흥국 통계도 확대 나갈 예정이다. ISTANS 홈페이지 www.istans.or.kr에 접속, 회원가입(무료)을 하면 누구나 산업통계자료를 검색·다운받을 수 있다.

산업통계분석시스템(ISTANS)이란 정부, 기업, 학계, 학생 등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미시적 산업통계의 통합검색·분석이 가능한 One-stop 산업통계 DB사이트이다.

ISTANS는 지식경제부가 산업연구원과 공동으로 '03년부터 기획하여 '05년 5월 웹사이트를 오픈하였으며 이후 서비스 대상 산업 및 관련 통계정보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였다.

('05년) 제조업 13개 산업 → ('06년) 제조업

20개 산업 → ('07년) 제조업 26개 산업 추가 → ('08년) 제조업 26개, 서비스업 8개 산업 → ('10년) 제조업 30개, 서비스업 20개 산업이다.

ISTANS는 국내 유일의 산업통계 허브(Hub)이다. 우리나라의 제조업과 서비스업 산업통계를 주제별·산업별로 검색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와 외국의 산업통계도 한눈에 비교 가능하다.

신성장동력 등 새로운 산업들의 현황과 이슈도 시의성 있게 파악 가능하다. ISTANS는 국내 대부분의 산업통계를 서로 연계·비교할 수 있는 유일한 산업통계 웹사이트이다.

산업통계는 각종 통계기관에서 발표되고 있지만 조사대상이나 분류기준이 서로 달라 이들간 비교는 곤란한 실정이다. 산업별 GDP와 수출입을 함께 비교하기는 어려움이 있다.

개별 산업분류코드를 서로 연계하는 ISTANS 코드체계를 독자적으로 구축하여 산업통계간 연계를 통해 여러 산업통계를 비교 가능하다. 국민계정, 산업연관분석,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무역통계, STAN 등이다.

개편 주요 내용과 활용 사례를 보면, ISTANS 이용으로 사용자들의 통계 검색 시간이 단축된다.

개별 산업에 관한 전반적인 현황을 단 2번의 클릭으로 파악 가능하다. 자동차, 조선 등 특정 산업의 산업구조, 투자, 연구개발, 무역, 산업성과 등 전반적인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기존 Kosis, 한국수출입은행, 지경부통계사이트, KISVALUE 등 4개 이상의 통계사이트를 방문하여 자료 검색한다.

ISTANS 이용시 ISTANS 포털의 산업별 통계에서 해당 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 파악이 가능(2번 클릭)하다.

주요 산업통계 지표에 대한 국가간·산업간 비교는 3번의 클릭으로 검색이 가능하다. 글로벌산업통계 메뉴에서 특정 주제항목(예: 수출액)을 클릭하면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요 국가의 전세계 및 특정 국가에 대한 산업별 수출액을 연도별로 한눈에 볼 수 있다.

사례로 최근 한미 FTA의 미 의회 비준안 제출과 관련하여 미국 측이 자동차 문제를 적극 제기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한데,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대미 자동차 수출액과 수입액은 얼마나 될까? 글로벌산업통계에서 수출액과 수입액을 각각 클릭하고 상대국을 미국으로 설정하면 궁금증이 바로 해결된다.

다음으로, 기존 제공 통계 범위를 확대하고 새로운 통계를 수록되었다. 제조업과 서비스업에 대한 통계를 확대·세분화하였다.

보다 많은 제조업종과 서비스업종에 대한 통계를 제공함으로써 우리나라 제조업과 서비스업에 대한 비교·분석이 간편해졌다. 제조업은 25개 산업 → 30개 산업(112개 하위업종)이고, 서비스업은 8개 산업 → 20개 산업(49개 하위업종)이다.

사례로 정부는 지난 3월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서비스R&D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면서 국내 서비스R&D 수준이 제조업과 비교하여 매우 낮다고 발표한 바 있는데, 그렇다면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R&D는 어떤 수준이며 세부 업종별로 어디에 투자가 집중되고 있을까? 주제별통계의 R&D/기술 항목 중 연구개발을 클릭하면 제조업과 서비스업 전체 및 세부 업종별로 연도별 R&D 수준 및 비중 등을 파악할 수 있다.



제공되는 산업 범위를 확장·세분화하여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여러 하위 업종들로 이루어진 특정 산업에 대한 통계도 쉽게 파악이 가능하다. 의료산업은 의료기기산업 및 의약산업(이상 제조업)과 의료서비스산업(서비스업)으로 구성되는데, 이처럼 제조업과 서비스업에 모두 속해 있는 의료산업의 통계도 얻을 수 있을까? 산업별 통계에서 의약산업 및 의료서비스산업 부분을 클릭하여 해당 내용 검색이 가능한 것이다.

기존의 무역통계뿐만 아니라 FTA 체결대상국과의 수출입통계도 한번에 검색 가능하다. 국가별, 경제권역별, 대륙별 수출입 통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한 나라들과의 교역상황도 한눈에 파악 가능하다는 것이다.

예시를 보면, 2007년 6월 1일자로 한-ASEAN FTA 상품협정이 발효되었는데 그 전후로 우리나라 제조업 전체 및 특정 산업(예: 자동차산업)의 교역량이 어떻게 변화하였을까?

ISTANS의 주제별통계의 무역 메뉴에서 FTA 체결대상국 항목 클릭한다.

실물경제에서 활용도가 높은 핵심 주제에 대한 통계를 쉽게 파악된다. 예시로, 한국석유공사가 영국 원유탐사업체인 다나페트롤리엄의 인수를 추진하고 있다는 기사(2010년 7월 2일자)를 봤는데, 우리나라의 해외자원개발 현황이 궁금하다면? 주제별통계의 에너지 항목에서 에너지자원수급을 클릭한 다음 해외자원개발사업과 해외자원자주개발률을 클릭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사용자 위주의 시스템 환경 개편이다. 사용자 편의를 위해 간결한 디자인과 단순한 인터페이스 환경 조성했다.

현행은 이전의 ISTANS에서는 주요 메뉴들이 일부 중복되어 있고 메인메뉴 아래 하부메뉴의 종류가 많아 이용하기가 복잡하였다. 개편에서 이용빈도를 고려하여 메뉴를 재배치하고 디자인을 간결하게 바꾸고 UI(User Interface)를 Tree 구조로 단순화한 것이다.

